



주제 103(2014)년의 첫 아침이 밝아온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희망과 신심이 가득 차넘치고있다.

지난해는 공화국의 역사에서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뜻깊은 한 해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과 뜻깊은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시위, 김일성장군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비롯한 성대한 행사들은 령도자와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공화국의 불패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지난해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이 땅위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하나둘 눈부신 현실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려 사회주의문명강국을

로 펼쳐졌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거리와 살림집들, 최상급의 병원들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일떠서 만복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다.

선군의 기치따라 걸어온 지난해를 긍지높이 추억하며, 더 높이 비약할 조국의 모습, 눈앞에 펼쳐질 보다 큰 행복을 환희에 넘쳐 그려 보며 기쁨과 희망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내달려 공화국을 정치와 군사분야에서뿐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당당히 소리칠수 있는 부강하고 번영하는 행복의 터전으로 만들려는것이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한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다.

인민군인들은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보위할 열의에 넘쳐있고 근로자들은 올해의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비약을 가져올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강성국가건설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는데서 선도자적 역할을 다할 기세에 넘쳐있고 체육인들은 올해에도 조

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천하에 떨칠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부강조국의 패일을 하루빨리 안아올 열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화국 인민들의 새해 첫 진군길의 진두에는 승리와 희망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바라던 모든 꿈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진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심장에 새기고있는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다.

새해 2014년에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갈것이다.

본사기자 최대성

새해의 이 아침 사람들은 서로마다 덕담을 건네며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주고 받는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건강하여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모두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인사말들이다. 허나 그중에서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하나의 귀전에 류달리 정경게 틀려온다.

왜서일까. 해마다 설날이 오면 흔히 주고받는 덕담중의 하나이건만 2014년 새해에는 복이란 말이 별스레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다.

복이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만족과 그것으로 말미

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이다.

생각이 깊어진다. 2013년 1월 1일에도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말을 주고 받으며 새해를 맞이하였었다.

이제는 지난해로 불러주는 2013년, 그 한해동안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안았던가.

새해에는 또 어떤 복이...

1월 1일 아침 사람들은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화복과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받아안았다.

령도자의 축복으로 시작된 뜻깊은 2013년이었다. 그래서인지 온 한해동안 공화국인민들은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아안았다.

온 나라 곳곳마다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졌던것이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온화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

학 교육자살림집, 그 이름도 유정찬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자강병원, 완공을 앞둔 마식령스키장...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의 웃음넘치는 만복의 터전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과연 상상이나 했던가. TV에서 다른 나라의 눈엣인 스키장들을 무심히 바라

가 쥐여지게 되었다. 누구나 생활에 만족하여 즐거워하고 있고 기쁨에 넘쳐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공화국의 우월한 사회제도, 인민대중중심의 정치하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진 2013년이었다.

하다면 새해 2014년에는 또 어떤 복이 차례지겠는지, 지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한해를 내다보며 궁금해하고 내심 기대하는 복에 대한 생각을이다. 분명한 것은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고 뛰어난 령도실력을 지닌 절대위인이 계시는 공화국의 새해는 더욱 흥하고 인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 복이 차례지게 된다는것이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과 신심으로 부풀게 슬픔에서 울려나오는 폐사를 게 들을수 없는 이해의 설인 사이다.

김준경

새해를 앞둔 평양의 밤거리는 명절분위기에 들떠 잠들 줄 몰랐다.

새해를 맞이할 기쁨에 넘쳐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싶어 취재길에 오른 우리는 평양도시설계연구소에 다니는 로력영웅이며 공훈설계가인 고인수선생의 가정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니 흥경희녀성이 나와 반갑게 맞이하며 하는 말이 열마전에 남편(고인수)이 건설부문일군대 강습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는데 양력설을 앞두고 쌍둥이손녀들까지 태어나 집안에 경사가 겹쳐있다고, 그



해서 온 가족이 모여앉아 반듯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중이라는것이였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집안의 가장인 고인수선생이었다.

일흔고개를 앞두었지만 훨씬 젊어보이는 고인수선생은 로력영웅, 공훈설계가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우리의 말에 자기야말로 행복자라고, 일본땅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온갖 복을 다 누리며 산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갈 일념을 안고

고인수선생의 어린시절은 바람세찬 일본땅에서 흘렀다. 그의 식구들은 살림살이가 쪼들릴대로 쪼들려 제 집이라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비좁은 세방에서 여덟식구가 살다나니 아버지는 늘 밖에서 땅을 팔고 새우잠을 자곤 했다.

어린 인수의 꿈은 건축가가 되는것이였다. 좋은 집에 사는 산다고 우쭐떨거리는 일본아이들이 보란듯이 더 좋은 집을 짓고 살아보고싶었다. 하지만 저주로운 세상은 소년에게서 한가닥의 희망마저 무참히 빼앗아갔다. 수재로 소문난 그였건만 민족적 차별이 심한 일본땅에서 한갓 얼음위에 떨어진 씨앗에 불과했다.

건축가가 되고싶은 그의 간절한 소원은 귀족의 배길로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져서 비로소 성취될수 있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오늘의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졸업한 고인수선생은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유능한 설

계가로 성장하였다. 대학졸업후 처음으로 맡은 락원영화관설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평양제1백화점, 문수거리, 천리마거리 2계단, 광복거리, 3대혁명전시관, 삼지연혁명사적관설계를 비롯한 수많은 대상설계에 참가하여 큰 공로를 세웠다.

그가 설계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준공식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아주 멋있다고, 설계도 잘하고 짓기도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궁전이라고 높이 평가하실 때 고인수선생은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제가 설계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몸소 보아주시고 여러차례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로력영웅으로, 공훈설계가

로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인수선생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있었다. 이제는 년세도 많은데 취임취임 일해도 되지 않았는가하고 하자 고인수선생은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자면 할 일이 많습니다. 문명국의 패일은 우리 설계가들의 설계탁에서 그려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건축설계가들에 대한 조국의 믿음과 기대를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다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세계적수준을 통과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1번수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고 열정에 넘쳐 말하였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사업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갈 그결의가 훌륭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문막을 나서는데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고있었다. 희망찬 새해, 건설에서 대변영기의 첫 아침이 동터오고있었다.

본사기자 고영숙



고인수선생의 가정 (왼쪽에서 세번째)

주제 103(2014)년 새해 우표가 나왔다

주제 103(2014)년 새해를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우표를 발행하였다.

우표는 천리마동상과 웅장 화려한 창전거리의 전경을 통하여 《마식령수도》창조의 불길높이 새인을 경탄시키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인민이 바라던 모든 꿈과 리상이 현

실로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공화국의 눈부신 전변의 모습을 함박눈이 내리는 줄거운 설풍경속에 보여주고있다.

우표에는 새해 2014년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국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사

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와 함께 우표에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제 103(2014)》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